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어깨 회전 이뤄져야 비거리 향상

■ 테이크 백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 한 공이 깃대와 홀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당연히 홀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어 올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동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타를 받을 수도 있다. 홀에 들어간 공이란 '공이 홀의 원둘레 안에 정지해 있으며 공 전체가 홀 가장자리보다 아래에 있을 때'란 규정이 있다면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카트 마스터스에서는 소렌 한센의 볼이 홀 주변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홀로 떨어졌다. 동반 경기자인 마티아스 그룬밸리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이 시간을 빼는데 규정에서 허용한 10초가 경과한 후 볼이 홀로 떨어졌기 때문에 1벌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경기위원은 그런 주변에 있던 여러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10초 이상 경과 후에 들어갔다고 보고 1벌타를 부과했다.

하지만 다른 경기위원이 비디오를 관독해 8초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1벌타를 부과 받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프로들도 경기규칙에 대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추어들은 이같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로컬들이나 동반자 양해를 얻어 플레이를 많이 펼친다.

하지만 무작정 건시드를 부른다든지, 규칙과 동떨어진 '마음대로 볼'을 적용하게 되면 실력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항상 그 힘과 플레이를 하면 모르지만 다른 팀에 끼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새 볼에는 골퍼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매너와 규칙부터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주 골프클리닉은 조인옥(여·43·남구 봉선동)씨가 노크했다. 조 씨는 구력 1년6개월에 90대 중반 핸디의 기록한 골퍼로 드라이버 비거리가 짧아 김진철 프로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진철 프로는 조 씨의 아프로치부터 접점에 들어갔다. 조 씨는 체중을 양발에 균등하게 분포시킨 채 아프로치를 하고 있어 김 프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 프로는 아프로치는 항상 원발에 미리 체중을 싣고, 원발은 약간 오픈해서 스텝스를 취하고, 핸드퍼스트자세로 공을 때릴 때는 원손으로 리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프로의 지적을 받은 조 씨는 곧바로 자세를 교정하는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였다. 김 프로는 특히 아직까지 잔디가 올라오지 않아 아프로치를 할 때 샌드웨이지보다는 피칭웨이지로 러닝아프로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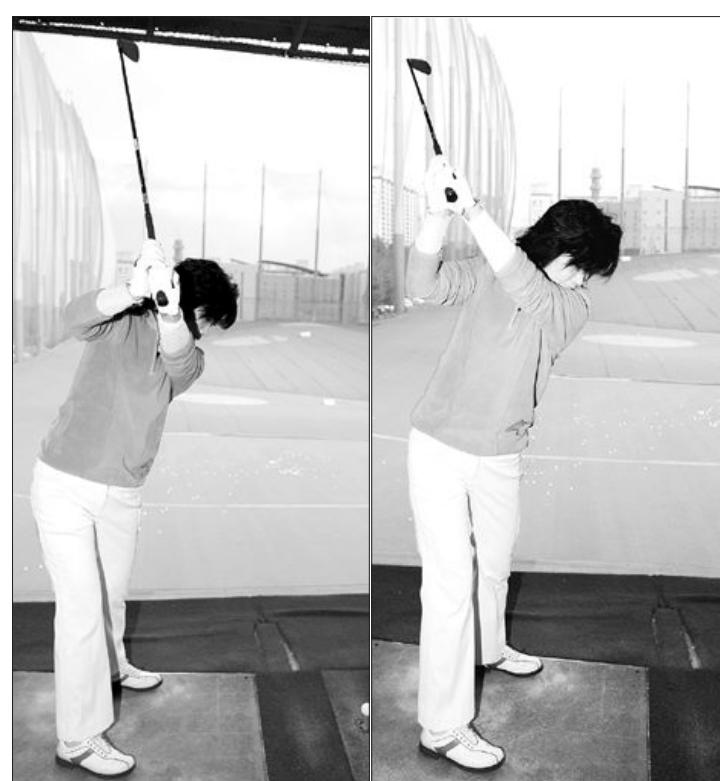
아프로치 원포인트 레슨에 고무된 조 씨는 7번 아이언 샷을 자신있게 했으나 역시 김프로의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조 씨는 테이크 백을 할 때 체중을 원발에 남긴 채 팔로만 클럽을 들어 올려 원발이 들리면서 몸이 역K자가 되는 역피봇 현상이 발생해 비거리 손해를 보고 있었다.

김 프로는 역피봇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왼쪽 어깨 던이 이뤄지지 않아 비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또 조 씨가 하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 비거리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프로는 테이크 백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항상 하체가 리드하는 스윙이 돼야만 정확한 임팩트와 체중이동이 이뤄져 강한 스윙을 할 수 있다



오른 팔을 이용해 클럽을 들어올려 업라이트 한 스윙을 유발하는 잘못된 백스윙 탑(왼쪽)과 왼쪽 어깨 회전을 이용한 잘된 백스윙 탑.

고강조했다.

김 프로는 디운스윙 시 하체로 리드하게 되면 디운스윙이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면서 레이트 히팅이 돋아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김 프로의 지적을 받고 하체 사용에 대한 자세 교정이 이뤄졌으나 테이크 백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들릴 정도로 클럽을 들어올리는 자세는 그대로였다.

김 프로는 조 씨에게 왼팔로만 테이크 백을 할 것을 주문했고, 이러한 자세가 곧 올바른 테이크 백의 탑 자세라고 설명했다.

아이언 자세가 어느정도 교정이 되자 드라이버에 대한 본격적인 교정에 들어갔다.

김 프로는 테이크 백에서 팔로만 클럽을 들어올리려 하기 때문에 몸과 손 간격이 멀리 떨어져 강한 임팩트를 하지 못해 비거리가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조 씨는 김 프로의 지적을 받고 테이크 백을 할 때 왼쪽 어깨를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백 스윙을 하게 되자 당장 비거리 향상의 효과를 보았다.

김 프로는 "아마추어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스윙이 디운스윙에서 몸을 중심으로 우측에서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비거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항상 자신의 몸 왼쪽 사이드에서 힘을 쓰는 스윙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이같은 스윙을 익히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헤드쪽을 잡고 스윙을 했을 때 바람소리가 공의 왼쪽에서 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정·지도=김진철 (KPGA 프로)



테이크백에서 오른팔로 급격하게 클럽을 들어올려 몸과 클럽 간격이 많이 벌어진 잘못된 자세(왼쪽)와 왼쪽어깨의 충분한 회전을 이용한 올바른 테이크 백자세.



드라이버 어드레스에서 공이 중앙에 위치한 잘못된 자세(왼쪽)와 원발에 공이 위치한 잘된 자세.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고구려보쌈·감자탕 화정동 신동아@ 카이저호프앞 보쌈,감자탕 포장시 10% 할인 ☎(062)362-7676	웅진복클럽광주서부사업국 광산구 소촌동 전용법 정형외과 5층 웅진복클럽과 함께 독서교육전문 기업의 꿈을 키워갈 독서코치및 매니저모집 ☎(062)942-0160
베스트정보 화정동 서광주 세무서와 모이@건너 농협 앞 SK,KTF,LG 취급업소 마케팅팀장 정재환 ☎(062)372-0017	원조양동통닭 복구 오치동 삼익2차앞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기마슬 통닭 기마슬통 닭30년경력 후리아이드 10,000양/1,000추가 ☎(062)267-9945
무한도전카클리닉 광산구 소촌동 GS칼텍스 주유소내 에어컨,오일교환,파워리,리어닝 타이어 디스크연마,기타 경정비업체 ☎(062)943-4211	매운갈비찜묵은지삼겹살 복구일곡동 831-5 매운갈비찜묵은지 삼겹살전문 단체석상 예약환영 대표 김 필 순 ☎(062)575-5906
동양칠학원 동구 불로동 밀리오레건너 수성노인당 작명,사주,관상,신수택일 ☎(062)224-7687	6.25 참전전우회 복구 중흥동 안보회관앞 해광건설 4층 6.25 참전 전우회 회장 유관성 ☎(062)513-6250
바다로활어관 문흥동 일신@앞 정통일식 전문점,단체손님 환영 대표 염 공 오 ☎(062)265-8274	명가영명국밥 광산구 송정동 매일시장 입구 모듬국밥,선자국밥,모듬수육,막창전골전문 대표 박 은 속 ☎(062)942-2727
큰집곳간에뻥소리 광산구 송정동 프로그래스@ 정문앞 뻥과,말기과,각종곡물 튀밥 튀겨 드립니다 대표 이 종 락 ☎(062)433-8408	완도신지횟집 복구 오치동 861-3 북부경찰서 정문 건너편 활어전문,점심메뉴 청국장·백반 대표 일정희 ☎(062)269-7747
동아리돈까스 동구 서석동 23-14 조대정문앞 치즈돈까스·새우볶음밥,돈까스밥,김치찌개 우동전문 시간제 일바구함 ☎(062)234-5252	나라공인증개사 광산구 월곡동 주공 10단지 상가내 부동산의 모든 것 상담한명 주택,아파트 토지,건물,전세월세 전문 ☎(062)952-8680